

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64호

발행일 : 2021.08.08.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백장미 청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12:2)

이 간증을 쓰고
저는 또 뒤돌아서서
주님 마음에 상처를 입혀 드리고
죄로 물들 수도 있지만
전 또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주님 옷자락 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놓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의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간증>

백장미 청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2)



할렐루야 저는 밀알 청년회의 이제 막 막내를 벗어난 21살 백장미 청년이라고 합니다 -!

우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서 많이 부끄럽고 모자라지만,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크신 존재이시며 온전하신 분이신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글을 길게 써 본지가 언젠지 기억조차 않나 뒤죽박죽 많이 어설플 수 있지만, 저의 믿음의 간증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깊숙이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크게 2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이 무슨 고등학생이 다들 공부하느라 힘들어서 그렇지 뭐 다들 그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케이스랄까요^▽^..? 고등학교 1학년 처음은 송악 고등학교로 진학하였지만 꿈을 위해 1학년 때 서울에 있는 디자인 고등학교에 전학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러 문제점들과 힘들음을 견디지 못하고 고등학교 자퇴서까지 써야 하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자퇴라는 단어는 진짜 드라마에서만 듣던 단어고, 이런 일이 진짜 제 인생 속에서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했었으니까요. 매일 서울에서 전학 간 학교로 등교하는 것이 두려웠고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건 물론이고, 매일매일 울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가족 같은 이영선 집사님, 또한 항상 잊지 않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덕분에 저는 다시 송악 고등학교로 돌아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주님은 저를 365일 24시간 내내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지만,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정말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니 제일 가까워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학년 3학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거짓말이죠. 친구들 좋아하는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에는 친구들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니깐요... 엄마인 이영주 집사님께도 많이 혼났지만, 그래도 나름 친구들 사이에서도 교회 다니는 친구로 주일에 맡겨진 사역과 예배, 토요 학생예배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신앙생활은 신앙 생활에 맞게 친구들이랑 놀 때는 친구들이랑 놀며,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원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꿈이었던 패션에 관한 대학에 입학해 처음으로 '장학금'이라는 것도 타보고 열심히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을 병행해 나갔습니다. 대학 생활을 서울에서 하다 보니 매주 당진에 내려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예배전 찬양단 사역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 사역이 저에게 너무나 큰 자리지만 전 그 자리에 서는 걸 정말 매주 즐겁게 해 왔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저의 본 교회에서 지키고 싶고, 청년회 언니, 오빠들도 그래왔듯이 저 또한 그러고 싶어 매주 힘들어도 서울에서 수업 끝나면 버스타고 당진에 내려오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반복하며 대학교 1학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2학년인 지금 저는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21년도 2월부터 골프 캐디라는 직업으로 5-6개월 정도 일을 하고 현재는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음~ 제가 캐디를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는 물론 물질적인 것이 제일 컸겠죠? 물론 저도 저희 가족도 골프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물론 옷을 좋아해 패션디자인 학과에 진학했지만, 저는 일단 그냥 돈!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냥 전 저희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것 다 해주면서 저도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사고 먹으면서 친구들한테도 폐 안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주고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서 제 꿈도 있지만 그냥 물질적인 것만 생각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제가 번 돈으로 십일조도 드리고, 가족들 용돈도 주고, 친구들 선물도 사주고, 이 일이 제 성격에 잘 맞아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버는 큰돈이고 몸은 힘들지만 돈 버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 뭐 육체적인 일 물론 힘들었지만, 그만둘 정도로 힘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선배님들도 잘 챙겨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때론 안 좋은 손님들 만나면 조금 힘들었지만 또 좋은 분들을 만나면 기분 좋게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길게는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의 성격이나 적성과는 너무너무 잘 맞는 일이었지만,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즐겁지 않았습니다. 신나지 않았고, 일하면서 웃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님들에게 형식적으로 웃을 뿐 ..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엔 ‘너무 철이 없고 일을 재미로 하는 게 어디 있어’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지만 21살인 저에게는 잘하는 일보다 하는 데에 있어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캐디 일을 하면서 교회도 한달에 한 번 참석할까 말까 하고, 신앙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주일 오전 예배전 찬양단을 꽤 오래 사역했는데 제가 맡은 사역도 내려와야 하고, 집 - 골프장 - 집 - 골프장 - ... 성전 밟기 할 수 있는 차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과 계속 멀어져만 가고,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하고 싶은데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힘들어서 바로 자고.. 제가 저를 볼 때 너무 힘들고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두고 제 본분인 학생으로 돌아와 내년엔 복학해 일단은 졸업을 하려고 합니다 !__! 아직은 졸업하고 무슨 직장을 가질지 무슨 일을 할지 패션을 계속할지 다른 일을 찾을지 주님 밖에 모르십니다. 두렵고, 무섭고, 궁금하지만, 주님께 다 맡기고 일단 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

지금까지 저에 속 이야기들을 한 이유는 고등학교 때 전학을 갔던 것도, 캐디를 시작한 것도 모두 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혼자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주님께 여쭙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이걸 선택해서 제가 제 입술로 선포한 것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주님께 여쭙보지도 말씀드리지도 않았었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 스스로 결정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언니 오빠 친구들 또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 그 뒤로 그 누가 저를 말려도 설득해도 듣지 않습니다. 혹여나 그게 주님의 음성일지라도요 .. 혼나야겠조 저? 그렇지만 그 일을 행했든, 행하지 않았든 후회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캐디 할 걸 ..’ 또는 ‘아 캐디 하지 말걸 ..’ 전 두 개 다 후회할 선택이라면 일단은 해보고 후회하렵니다. 이게 제 성격이고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담대함이 아닐까 합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일을 한 것도 그 일을 통해서 많은 힘듦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제게 깨달음을 주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하는 것은 무조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은 항상 길을 만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 제가 너무 늦게 알았지만, 늦게 안만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 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도와 주님의 음성만이 정답인거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U<☺

제 뜻과 제 생각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롯이 저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 그 일을 저지른 후에 후회를 해보고 나서 힘들다고 울면서 주님께 말하는 거죠 ‘왜 하지 말라고 말리시지 않으셨냐고’ 그러면 음 .. 주님도 마음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힘들어서 울어도 그 힘듦의 고난 뒤엔 뭐가 있으신지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ㅜ 성도님들께서는 저처럼 그러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이나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엔 정답은 주님만 아시니 주님께 여쭙보세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 혹은 저희는 사랑이 숨 쉬는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가족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니, 붙잡고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주님의 음성일지 혹시 모르는 거니깐 ^__^ ! 또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거 성도님들도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쓰디 쓴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이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더 넓은 마음과 더 넓은 귀와 더 넓은 세상을 주님께선 저에게도 성도님들께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조금씩 간증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지쳤어도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습니다 ..! 태어나 처음 한 사회생활을 오래는 못했지만 많이 배웠고, 깨달았고, 이 또한 주님이 주신 저의 21살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마음에 품고 앞으로는 더 씩씩하게 더 신중하게 더욱더 성장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께서 하신 선택이 혹여나 나중에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픈 곳에 손을 놓고 아픈 내 몸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아픈 것이 치유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선택에 있어 의심 말고, 내 마음에 손을 놓고 그 선택을 믿고 오직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저와 모든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아직 주님이 보시기에 여리고 부족하고 죄로 물든 한없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간증을 쓰고 저는 또 뒤돌아서서 주님 마음에 상처를 입혀 드리고 죄로 물들 수도 있지만 전 또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주님 옷자락 잡고, 기도하고 회개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놓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의 그 마지막 때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나라 가겠습니다. 주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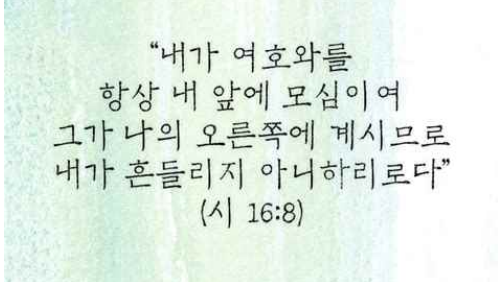
사랑하는 당진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제가 또 세상에 휩쓸려 방황하고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만 뒤돌아봐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한 번씩 꼭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많이 부족한 저의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8월 건강으로도 믿음으로도 승리하는 한 달 되길 바랍니다 !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 16:8)



백승혁 청년의
성장과정



자랑스러운
우리아들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밀알 청년회 26살 백승혁 청년입니다.

2.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현대 제철소 안에 있는 ‘성우에스지’ 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여자친구 있어요? 있으면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6년째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랑 같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축구 때문에 일본에 있을 때도 군대에 갔을 때도 응원해 주고 기다려준 소중한고 고마운 여자 친구 입니다.

4. 내 인생에서 축구란?

딱 한가지로 떠오르지는 않지만 소중한 추억이죠. 지금은 선수로서 생활하지는 않지만 13년동안 축구를 하면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부모님께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도와주셔서 끝까지 미련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기도, 응원 덕분에 더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었습니다.

5.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구나 생각될 때는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건강이죠. 요즘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병원을 자주 가시고 얼마전에는 엄마가 어깨 수술하셔서 많이 걱정됩니다. 어차피 나이 드시는거면 아빠 엄마 두분이서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게 나이 드시면 아들로서 바랄게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은 제가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

6. 몇 년 후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될텐데요.

내가 이루고 싶은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희 집, 저희 부모님처럼 자식들 사랑해주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게 바램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려 나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귀여운 딸이 있으면 좋겠어요!

7. 26년 인생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 많았지요?

생각나는 것 한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26년동안 살면서 13년 축구를 배우고, 선수로 생활하면서 수술도 여러번 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진학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결국에 축구를 그만해야겠다고 혼자 생각하고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그만둔 것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8. 내가 한 일 중 ‘그렇게 하지 말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일 있나요?

하지 말 걸은 아니지만 조금 후회되는 경험은 대학교 진학 할 때 수도권으로 갈까 했지만 금전적인 부분이나 경기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대학교로 선택하고 진학했었는데 수도권으로 가서 더 경쟁하고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드네요.

9. 하나님은 성도님께 어떤 분이세요?

제게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제게 평안함을 더해주시는 그런 분!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10.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성도님께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소원이 무엇인가요?

제 소원은 저희 교회 식구들 모두가 건강하고 하시는 일들을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해 나아가는 것. 이게 제 소원입니다.

11.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 때는 언제인가요?

저는 아무래도 건강한 몸이 복 받은게 아닐까 싶어요. 건강한 몸으로 오랫동안 운동도 하고 지금은 열심히 돈도 벌고 있으니까요~ 주님께서 주신 복이 건강만 있지 않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주신 건강이라는 복으로 맡은 일 열심히 하며 신앙을 지켜 나아가겠습니다.

12. 어머니가 두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시며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 닭갈비를 해주셨는데 너무 짜고 너무 맵고 맛이 없었어요. 성도님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음 저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잘 먹지만 조금 솔직한 스타일이라서 혹여나 그러신다면 다 먹고나서 솔직하게 바로 말씀 드렸을 것 같아요.

13. 성도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죠. 한없이 보잘 것 없는 저를 지금까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인생은 주님 주신 사랑 보답하고 노력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14. 성도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운 점은 제 얕은 믿음입니다.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서 교회를 자주 못나오다 보니, 믿음에 대해 굳게 서지 못했었고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얕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많이 불안하지만, 앞으로 당진에 있으면서 교회를 더 가까이하며 신앙생활을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저 스스로 믿음을 키워 나아가는 청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5. 요즘 주일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요즘 다니고 있는 회사가 현대 ITC라는 회사로 넘어가려는 상황인데 제가 아직 신입이라서 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걸 위해 요즘 매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16. 주님이 날 위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때는 언제였나요?

제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항상 든든하게 막아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축구 하면서 더 심하게 다칠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치더라도 빠른 회복 주시고! 제가 모르는 데에서도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항상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17. 누나가 머지않아 시집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집가는 누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누나! 결혼 너무 축하하고! 첫째여서 항상 나랑 장미 먼저 챙겨줘서 고맙고 시집가서도 형이랑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믿음 가지고 예쁘게 살아 ~ 냉장고 골라봐~

18. 26년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맘껏 칭찬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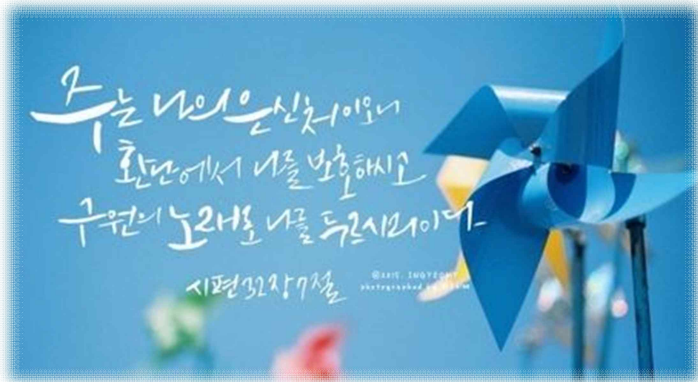
승혁아 26년동안 열심히 살고 수고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자만 하지 말고 신앙 지키면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 파이팅!

19. 지금 이 순간 가장 감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에게 감사 인사말 해 주세요.

감사한 분 너무 많지만 쓰다보니 아빠가 생각나네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아빠랑 사이가 서먹하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편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빠께서 지금은 교회 안다니시지만 언젠가 꼭 다닐거라고 본인도 그러셨고 저도 그리고 엄마도 누나도 장미도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빠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걱정거리도 해결 해 주실거라 믿고 지금까지의 저희 가정 말고 지금부터의 저희 가정을 지켜봐주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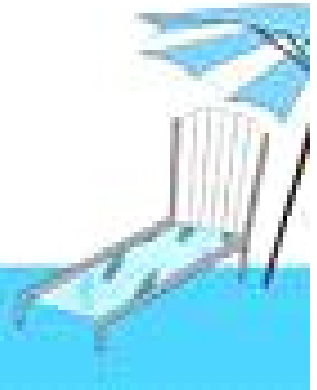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정현미 집사

- * 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심 감사
- * 신앙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신앙생활 이해해줘서 감사
- * 할 줄 아는게 없는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2년 넘게 다니게 하심 감사
- * 직장 동료들 좋은 사람으로 붙여 주심도 감사
- * 교회가 나의 피난처 되게 하심 감사
- * 코로나 잔여 백신 2차까지 안전하게 맞게 하심 감사
- * 튼튼한 정신과 몸을 허락 하심 감사
- * 더위도 참을 수 있는 힘주심 감사
- * 에어컨이 있어 시원한 여름 보내게 하심 감사
- * 양가 부모님들이 살아계심 감사
- * 농사를 지어 신선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감사
- * 닭을 키워 신선한 계란 먹을수 있음 감사
- * 아이들 방학이라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서 감사
- * 아이들이 집안일 도와줘서 감사
- * 주택이라 층간소음 걱정 없어 감사
- * 멀어도 내 차가 있어 언제나 교회 갈수 있음 감사
- * 시골인데도 3, 4군데 배달 오는 곳이 있어 감사
- * 바다가 가까워서 기분 전환할 때 갈수 있어 감사

임경아 권찰

- * 수술 앞두고 성전 오르게 하심에 감사
- * 남편의 사고 수술이 잘 해결됨에 감사
- * 수술 잘 되어서 건강 찾고 있게 하심 감사
- * 승민이 골든에이지 훈련 점수 잘 나옴에 감사
- * 승우 입술 부딪혀 1센치이상 찢어졌음에도 잘 아물고 치료하심에 감사
- * 가족의 건강함에 감사
- * 방학중에 승민이가 격리되어 감사
- * 좋은 분들 붙여 주시어 아이들 점심 해결함에 감사
- * 승우가 밥을 안먹고 우유만 찾았는데 하루 두끼 먹음에 감사
- * 남편의 성격이 잦아듬에 감사
- * 친정 부모님 코로나 접종 맞고 잘 지나감에 감사
- * 승민이 코로나 첫 검사 음성 나옴 감사
- * 필요시마다 물질 채워주심에 감사



오늘도 난 아침부터 갑상선약으로 시작을 한다.
 일어나자마자 약을 먹고 움직였다. 약 먹고 시간을 봤다.
 아고! 늦었네~ 준희야! 일어나야지 지각이다! 지금 안 일어나면
 늦어~
 하며 준희를 깨워본다. 지금 가면 늦으니 데려다 주세요. 엄마!
 부랴부랴 세수를 대충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시동을 켜다.
 아침부터 태워다 주게 된 준희. 집으로 오니 이젠 재민이가 늦었
 단다..
 오늘 지각을 하는 날인가.. 애들이 다들 늦게 일어났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재민이 등교시키기 위
 해 또 내려갔다.
 재민이를 태워주고 집에 오니 우진이가 아직도 자고 있다.
 우진아~! 우진아!! 일어나야지!!
 겨우 깨우고 우진이 먹을 주먹밥을 만들고 우진이를 챙긴다..
 우진이가 먹고 있는 사이 나는 우진이 준비물 확인을 하고 어린
 이집 등원 준비하는 동안 출근 준비도 같이 한다..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정신없이 시작을 한다..
 애들 셋을 다 보내고 나면 하루가 다 지나간 것 같다..
 우진이 등원을 시키고 일을 하러 가기 전 운전대를 붙잡고 기도
 를 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마음에 평안과 아이들이 무탈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날이 너무 더웠다.. 계단 청소를 하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흥건하다..

땡땡! 문자소리..

청소 일이 들어왔다..

샤워를 하고 싶은데 집에 가서 씻지도 못하고 편의
 점에서 대충 김밥을 사서 먹고 청소를 하러 갔다.

일을 다 마치고 보니.. 벌써 5시다.

집에 가니 아이들 셋이 이미 집에 와서 놀고 있다.

엄마! 엄마!! 집에 뭐 먹을 거 없어? 배고파!!

엄마가 와도 인사는 커녕 먹을 거부터 찾는 아이들...

아이들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보인다.

땀으로 젖은 옷도 못 갈아입고 아이들 간식부터 챙겨준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우진이가 엄마 놀이터 가자! 라며 조른다.

좀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네.. 오늘두.. 힘들지만 우진이가 놀고
싶다고 하니 나갈 준비를 한다.

우진이와 두어 시간 놀고 오니 저녁시간..

집에 안들어 간다는 우진이를 겨우 달래서 들어와 저녁을 준비하
고 시간을 보니.. 8시...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애들 씻기고 나
서 보니 9시가 넘었다.. 시간이 얼추 우진이 재울 시간이 되어서
우진이 재우고 나오니 10시..

이제 겨우 나만의 시간이 생긴다.. 그런데 내 시간이 있지만.. 몸
이 고되서 졸리다...

눅기만 하면 잠이 온다.. 오늘 하루도 바쁜 하루를 보냈다.

잠들기 전 생각을 해본다.. 하루종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
그게 바로 내가 아닌가 싶다 ...

그런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니 난 참 행복한 사람
이다.

잠들기 전 기도를 한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건강
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은 바쁘지만 바쁜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기
쁨이 있고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혜진 권찰



항상 싹싹하고 밝은 웃음으로 성도들과 눈 맞추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가장 핫한 분^^

유혜진 권찰님을 칭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라며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또한 느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세상이 불안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주님은 유혜진 권찰님을 통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가정을 축복하심으로 세움이 다운이를 주시더니 이번에는 채움을 주셨네요. 새 생명을 통해 이 가정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축복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고 돌보기가 어려운 시기지만 엄마가 먼저 건강하고 채움 이도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 해주세요.

감사릴레이

김정임 집사

저는 순성에 살아서 거리상 교회 다니기가 버거웠고 그 당시에는 초신자여서 교회에 대한 어떠한 기대나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는 지인을 통하여 전도 받아서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회에 대한 사모함과 믿음을 주셨고 교회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형편 또한 아시고 우리 가정에 물질 축복

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도 성전신앙을 가지고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자 구옥순 집사



<잘못 알고 있는 건강 상식>

- 당뇨병은 증세가 없으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약 60%가 자신이 당뇨병인지를 모르고 지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증세가 없습니다. 예전보다 물과 음식을 많이 먹는다. 소변의 양이 많아졌다. 이런 증상은 당뇨병이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경우에 나타납니다.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절대로 끊지 못한다는 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람들은 당뇨에 걸리면 한번에 치료가 가능하거나 완치가 가능한 약을 찾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 당뇨의 치료입니다. 그렇다고 한번 약을 시작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상당한 수의 환자들은 전문의 결정에 따라 약을 끊고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들어올 때마다
꼬리를 흔들며 격하게
표현해 주는
하늘이입니다 ~
(송마정 집사)



3년 전 우리 집으로
서로 전입한 요미입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건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친오빠가 3개월된
새끼를 선물로 주셔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김정임 집사)



이모 저모



6살 된 보리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길 ~~
(박성진 권찬)



맨날 제팔어
안겨 자는
은근이 압니다 ^^
(장지은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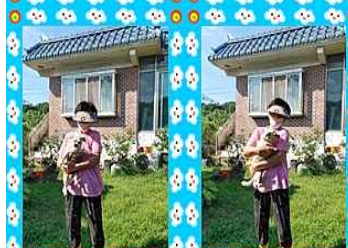
어린이집 다녀와 씻고
구피에게 밥 주고 있는
하연이 ^ ^
(장명희 집사)



파랑이와
봄바람 부는 날에 산책 ~~
(이영주 집사)



낚시 가게에 살고있는
새끼고양이 브이예요.
못생겼지만 귀엽죠?
(김병관 청년)



우리집 귀염둥이 치와랍니다 ~~
(정정희 권사님)



제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은 리코예요.
저랑 만난지 이제 1년 된
아기 고양이에요 ^ ^
(이민애 청년)

주일학교 소식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더위로 인해 냉방기가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더위와 냉방병 항상 조심하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시면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주,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위해 율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제곡인 I'm a C 를 처음 하는 날이었지만 율동 선생님인 김성령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우리 친구들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둘째 주, 율동 배우기는 계속되었는데요. 주제곡도 다시 한번 배우고 오늘은 새로운 곡으로 또 한번 재미있는 율동을 배우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셋째 주, 성경학교 시작 전 마지막 율동 배우기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그동안 배웠던 율동들을 복습하며 즐겁게 모든 율동의 시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 주, 드디어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전한 여름성경학교의 진행이 어려움에도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매주 어린이 예배시간을 활용해서 3주간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재미난 코너들이 진행되었지만 시간이 짧아 준비되어진 프로그램들이 온전히 진행 되어지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아이들이나 교사들 모두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주의 여름성경학교의 진행에 있어 세상의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주님의 은혜만을 통하여 잘 진행 되어질 수 있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다시는 아이들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퍼즐

							¹ 은		수
						² 여			
					³	성			
				⁴	세				
		⁵ 레		기					
⁶	로								
방									
⁷	⁸ 보		⁹ 지						
	¹⁰	장							

가로

1. 밤하늘에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무리,
마치 강처럼 길게 이려져 있어.
2. 우리는 지금 성경 속 00을 하고 있지?

3. 이스라엘 00들은 아기 사건 이후로 지혜로운 솔로몬을 존경했단다.
4.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사람은?
5. 구약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000, 민수기 순서로 이어진단다.
6. 진짜 아기 엄마를 찾아준 지혜의 왕은?
7. 잘 먹는 친구는 먹보, 잘 우는 친구는 00라고 하지?
9. 솔로몬은 하나님께 00를 선물로 달라고 부탁드렸어.
10. 수영장에서 발로 물을 찰병 찰병거리면 물속에서 장구를 치는 것 같다고 해서 000를 친다고 한단다.

세로

1. 용돈이 생기면 먼저 00에 저축해 뒀다가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는게 좋겠지? 헌금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다.
2. 여호수아가 빙빙 돌아서 무너지게 했던 가나안의 성.
3. 팔십세, 구십세 다음은 00!
4. 여름마다 앵앵거리며 우리를 물어서 가렵게 하는 것, 정말 귀찮지?
5. 한 입 깨물면 ‘아이 시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노란색의 과일, 레모네이드라는 음료수를 만들기도 한단다.
6. 소나무에 방울처럼 달린 000을 모아서 성경 속에 나오는 성이나 집을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겠지?
8. 한국의 00 1호는 동대문, 우리의 001호는 하나님이 돼야겠지?
9. 우리가 살고 있는 맑고 깨끗한 00가 병들지 않게 환경보호를 해야 해, 공해로 자꾸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지도 모르거든.

<지난호 정답>

						사	울
					질	서	
				화	투		
			자	랑			
	미	갈					
요	술						
나							
단	골						
	리						
	앗						

*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 essay.198 -



*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토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 6~7)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곳은 5곳



광복절 이야기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3.1절,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지정된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번이 무려 76번째 광복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광복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광복절의 의미

먼저 광복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 광복(光復)이란 영예롭게 무엇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일제에게서 독립해서 국권을 회복한 일을 아울러서 기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광복절 이야기

사실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긴 했지만 우리 나라의 독립은 곧바로 이루어진게 아니라고 해요. 일본은 라디오를 통해 항복을 전파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라디오가 거의 없었기에 다음 날인 8월 16일이 되어서야 해방 사실이 전국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복 직후에도 일본군은 무장을 풀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다가 미국이 일본에게서 받은 항복문서를 공표한 이후부터 일본군의 무장해제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해방된 후에도 우리나라는 태극기를 걸지 못하고 미국에 일본이 항복한 날인 9월 9일까지는 일장기를 달고 있었다는 뒷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광복절의 역사를 다시 되새겨볼 수 있는 장소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은 구 서울구치소 시설을 개조하여 과거의 서대문 감옥을 복원한 독립운동 및 민주화 운동 관련 역사관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저항하는 독립 투사들을 투옥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감옥으로 가슴 아픈 역사들을 담고 있는 장소 중 하나라고 해요.

실제로 전시관 내의 지하 고문실엔 고문을 받는 독립투사들의 모습을 밀랍 인형으로 재현해 놓았는데 여성 독립투사의 경우에는 음성까지 들리는 장면들도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그 현장에 계셨을 독립 운동가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네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

일제시대 당시 독립을 위해 싸우신 안중근 의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인데요. 이곳에서는 안중근 의사님에 대한 업적과 유품들 같은 역사들과 어록과 명언 같은 이야기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념관은 남산공원과 연결되어 있고 서울 성벽이 보수되면서 주변을 따라 걷다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하다고 해요. 예전에는 유료입장이었지만 현재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 남산에 가게 되면 한 번쯤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 기념관

독립 기념관은 일제로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바치신 독립 운동가 분들의 희생과 역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해요. 이 박물관은 무려 천안시의 랜드마크와 같은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독립 기념관 외곽 쪽에는 과거 철거된 조선총독부 청사의 침탑과 석재의 일부를 전시해 놓은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이 있다고 하네요. 사실 전시관이 있는 곳과 거리가 좀 있어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독립 기념관에 가게 되면 한 번쯤 꼭 둘러볼 만한 장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광복절의 의미와 이야기, 그리고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들을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시간이 많이 지나기도 했고 시기도 방학인지라 어린아이들도 또 성인이 된 우리들도 광복절을 그저 쉬는 날과 같이 지나가는 날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는 시간이 지난다고 잊어버려서는 안되는 역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우리가 지금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살아가 수 있도록 독립을 위해 몸 바쳤던 분들께 감사하고 또 잊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동글>

아름다운 끝씨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몬주익 언덕을 힘차게 달려 금메달을 땀던 황영조 선수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감동이 같은 대회 육상 트랙경기에서 있었는데, 바로 400미터 준결승 경기에 출전한 한 영국 선수였던 데렉 레드몬드(Derek redmond) 이야기이다. 영국의 육상 유망주로서 1988년의 서울올림픽에도 참가를 하지만 경기직전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인하여 이후 22번의 수술을 하고도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집념의 사나이였다.

이미 예선에서 좋은 성적으로 올라왔기에 결승리그 진출이 어렵지 않았던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었는데 출발 후 170m 지점에서 햄스트링(hamstring)이 파열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갑자기 트랙에 쓰러지고 말았다.

응급 치료진들이 달려왔지만 그는 손을 내저어 거절하고, 끝까지 달릴 것을 결심하지만 몇 발자국을 뛰면서 다시 쓰러졌고 기어가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관중석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뛰쳐나와 안전요원들을 물리치고 그를 부축하여 일으키는데 그는 바로 데렉 레드몬드의 아버지 짐 레드몬드였다.



아버지는 팔로 아들의 허리를 감싸 부축하고 함께 천천히 달려와 결승선에 이르자 아버지는 손을 놓아 아들이 혼자 결승선을 넘도록 하였다. 비록 규정상으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아들의 완주는 올림픽 기록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길지 않은 200m의 동반 완주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만들어 낸 가장 극적이면서 눈물겨운 감동의 드라마였다.

"아들아!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골인 지점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 나와 함께 가자꾸나"

서로에게 기댄 채 아버지와 아들이 만들어낸 드라마는 전 세계가 모두 지켜 보는 가운데 경기장 안의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 그들을 응원했고. 그들이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우승자에게 보내는 박수보다 훨씬 더 큰 박수갈채가 온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스포츠 자체가 많은 드라마를 연출하지만, 지금까지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 사랑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동의 순간이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이다. 어려움에 빠진 아들에게 일직선으로 달려가게 만들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순간을 만들어냈다.



성경의 운동력

어떤 성경 주석이나 설교도 일체 없이 오직 성경 한 권을 읽는 것만으로 원시인들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아마존 강에서 선교사업을 하는 한 선교사를 통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부부 두 세 사람이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추어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 단순한 공부였지만 그들은 기쁨을 발견하고 생활이 변하여서 나중에는 삼십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수십명의 선교사들이 배출되었고, 특히 치과의사 부부가 한 달에 4만 불씩 벌던 직업을 버리고 몇 백불의 월급을 받으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나왔지만, 요즘의 선교사들은 평신도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운동을 하러 다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한 부인의 간증을 들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글을 읽을 수 없어서 하루에 오백원의 품삯을 주며 성경을 읽어 줄 사람을 고용했는데, 읽어주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부인보다 더욱 신실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성경을 한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입다

뜻 : 그가 여시다

그는 길르앗 기생의 아들인데 본처의 아들에게 쫓겨 뚝 지방에 이르러 이방인과 같이 생활했다 (삿 11:1-3). 이때 압몬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경내에 침범하여 18년간이나 점거하고 있었다.

이를 구출하기 위하여 입다는 압몬 사람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만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와서는 자기를 제일 먼저 맞는 자를 번제로 드릴 것을 맹세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제일 먼저 맞은 자는 그의 사랑하는 무남독녀 딸이었다. 1년에 네 번씩 이 비운의 딸을 위하여 곡했다. 그는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6년간이나 다스렸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충실한 자라고 입다를 평했다(삼상 12:11)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신앙의 인간으로 인용하고 있다(히 11:32).

유머

- * 핸드폰 게임을 하는데 점프해야 하는 부분에서 자기도 같이 점프를....
- * 집에서 빨간 목도리 득템해서 두르고 밖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 피아노 덮개,
- * 안방에서 갑자기 땀 때리는 소리가 나길래 엄마 아빠 부부 싸움 하시는 줄 알고 뛰어갔더니 아빠가 스킨 바르고 계심,
- * 어떤 남이 남친이랑 있는데 방귀가 나올 것 같아서 큰 소리로 '사랑해' 외치면서 방귀를 끼었는데 남친 왈 '뭐라고? 방기소리 때문에 못들었어.'
- * 어떤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방귀가 너무 끼고 싶어서 교탁 치면서 소리에 묻히게 해서 끼려고 했는데 타이밍 못 맞춰서 '탁뽕탁뽕탁뽕'
- * 소개팅 나갔는데 너무 긴장해서 냉면을 호호~ 불어 먹음,



사랑의 희생

13세기 스페인의 귀족이며 명문 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렐은 자신의 유망한 장래를 포기하고 모슬림 교도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갔었다. 그는 두 번이나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였다. 일년 반을 감옥에 감금당했다. 노인이 되어 성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 갈 때에 그의 마지막 말은, "오직 예수"였다.

죽기 직전에 그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그의 목사 안수식 때에 "오, 주 하나님 당신께 나 자신,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라고 말했으며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만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을 취소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에서 핍박이 심해질 때에, 겔린드 물러는 믿음을 버리고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화형당하게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에게는 아내와 네 자녀가 있었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가?"라고 재판관이 물었다. "만일 하늘이 진주이고 땅이 금덩어리이고, 내가 그 모든 것의 소유자라면, 우리가 겨우 빵과 물만 먹고 살게 될지라도 내 가족을 위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러나 결단코 그리스도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는 교살되어 화장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랑의 희생을 잊지 않으셨다.

J. 오스왈드 샌더스 <기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중

불을 내려 주소서

나는 아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시사용어 Briefing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 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 상환비율(DSR)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HDRI)는 가구의 DSR와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 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이다. 가계 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파악해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GNI가 널리 쓰이고 있으나 국민총소득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정부가 벌어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여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이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헌신예배 / 바울남선교회, 8월 1일
1집사회, 8월 29일
2. 여름성경학교 / 7월 25일, 8월 1일, 8일

◎ 공지사항

1. 8월 생활실천표어 / 내 지경에 들어 오라
2. 여름방학 / 8월 2일~14일
3. 백신접종 / 접종자는 교회에 알려주세요.
일시, 종류, 횟차(몇 회)

◎ 이달의 교우소식

1. 잉태 - 유혜진권찰, 정소진권찰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윤경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050-4427-5278(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